

'15.6.2. 14:00부터
보도 가능

금융지주
현장간담회

금융위원장님 인사말씀

2015. 6.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제 도 팀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모두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9개 금융지주의 전략담당임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금융현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고 고민을 나누었던
여러분과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II. 금융지주 도입 15주년, 변화와 혁신 필요

여러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2000년)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회수 등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금융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양적 성장*에 비해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주 총자산 추이 : ('02) 173조원 → ('14년) 1,552조원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13년) : 한국 85.5%, 미국 39.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금융지주 ROE 추이 : ('06) 16.7% → ('09년) 4.9% → ('12년) 7.1% → ('14년) 6.4%

금융지주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 강물이 흐르는 것을 모르고 칼을 빠트린 곳을 뱃전에 표시해 두고 칼을 찾는다는
것으로 추세의 변화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의미

무엇보다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그룹 전략의 수립, ②계열사간 Synergy 제고,
③통합 Risk의 관리 등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도 **넓고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가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Ⅲ.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정부는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검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둘째,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 '14말 은행 순이자마진(NIM, %) : 한국 1.79, 미국 3.12, 베트남 3.18, 인니 3.73

** 4대 금융지주 해외 영업자산 비중: 한국 2%, JP모건 29.1%, 미즈호 44%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Fintech 등 신성장·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그룹내 자금, 인력,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느꼈던 애로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마무리 말씀

해외시장과 신사업 진출, 정보공유, 기타 영업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6월중 발표할 예정인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주는 한국 금융의 대표선수입니다.

대표선수인 금융지주의 경쟁력이 제고될 때

우리 금융산업의 수준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과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